

문학 계간지 <문학의 문학> 편집주간 이근배 시인

문학계 통합 이끄는 공동 그라운드 문학지 지향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합 문학지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창간 목적을 밝혔다. <문학의 문학>은 이어령, 이호철, 유종호, 박완서, 김윤식, 심경림, 황동규 등 중견 문인 및 평론가들이 편집 자문위원을 맡았다. 소설가 이청준, 김원일, 윤후명 등 중견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게재된 창간호는 젊은 작가 위주의 문학계 흐름에서 탈피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만찬가지로 문학에서도 원로가 없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원로가 필요합니다. 문학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원로가 병풍처럼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문학>은 최근의 문학계 분위기와 반대로 원로 콤플렉스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창간호 특집으로 작가 황석영을 다룬 것과 투병 중에도 신작 <이상한 선물>을 탈고한 작가 이청준의 소설은 책의 무게감을 더하는 요소들이다.

이근배 주간은 끼리끼리 나뉘어 있는 문단 해체 풍조를 지양하고 통합을 유도하는 중심적 문학지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작가와 작품에 치중한 동인적 성격의 문학지가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잡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말이다. 고른 필진들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세대 구분으로 인식될 우려가 없지 않다.

“창간호라서 원로, 중견에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우수한 작가들을 소개하고 역량에 비해 인정을 못 받은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문학지가 인기를 얻었다는 1970~1980년대에도 ‘창간호가 곧 종간호’라는 말이 심심치 않았던 문학지는 상업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마련인데 최근의 한국 문학계를 생각하면 운명과 유지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상업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다양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문학지들은 그러한 사명감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안 팔리니까 적당히 출간하기도 하는데 문학사 정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여러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작품 쓸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 문학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유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죠.”

<문학의 문학>은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작가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5,000만 원 고료 소설 공모전을 연다. 월간 <한국문학> 발행인 겸 주간을 역임하고 계간 <민족과 문학> 주간 등을 지낸 이근배 시인은 현재 현대시조100년기념사업회 회장이며, 시집으로는 《사랑을 연주하는 꽃나무》 《노래여 노래여》 《사람들이 새가 되고 싶은 까닭을 안다》 등이 있다. **한민**

“우 리 문학사는 좋은 작가 작품이 바로서기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참여니 순수니 하는 문학논쟁이 일어서 문학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찾지 못한 것이죠. 요즘 문학계는 신인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문학에도 중심축이 있었는데 이제는 편파적인 시각으로 고정된 필자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학계 전체로 시야를 넓힌 잡지가 없어요. 문학지라는 것은 공동의 그라운드, 광장이 되어 전체를 아우려야 합니다.”

문학 계간지 <문학의 문학>의 편집주간을 맡은 이근배 시인은 “중